

# 궁금한 우리말

안녕! 우리말

다듬은 말 알아보기  
맛의 말, 말의 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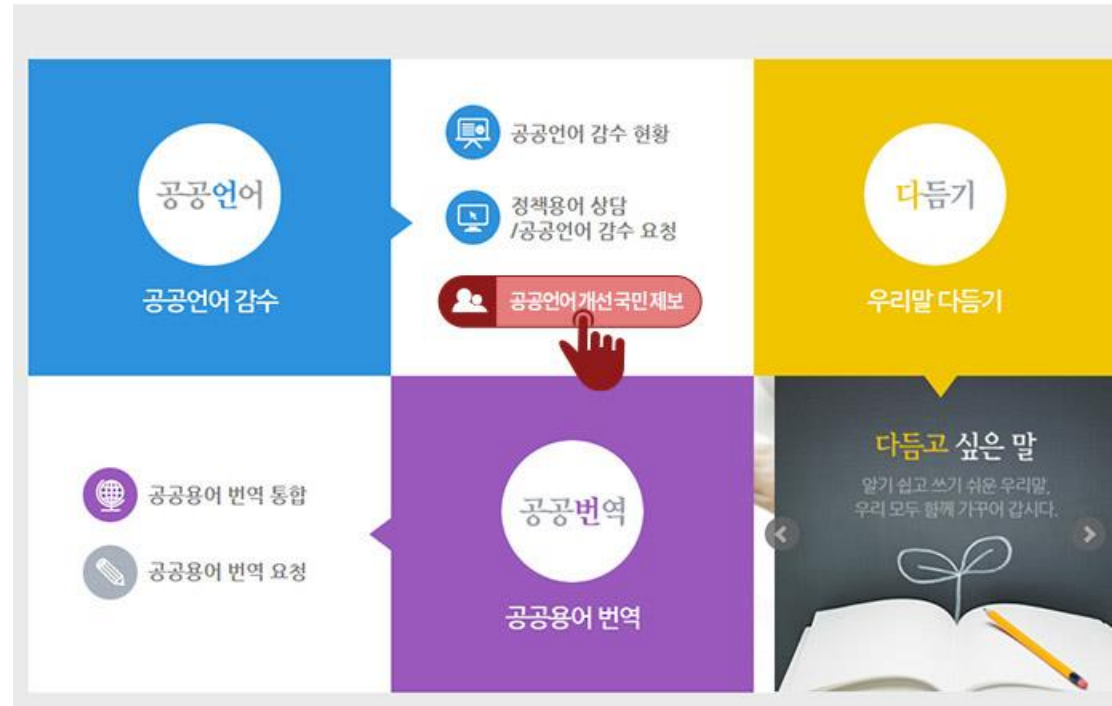
2018년 9월 11일



안녕! 우리말

어려운 공공언어 제보하시고  
상품권도 받아 가세요!

국립국어원에서는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공공언어 가운데 어렵거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공공언어를 국민이 직접 찾아 알리는 '공공언어 개선 국민 제보 참여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본 행사는 공공언어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수렴하고, 어려운 공공언어 개선에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음을 알리고자 마련되었다.



### <행사 참여 방법>

1. 어려운 공공언어(정책명, 제도명, 사업명 등)를 발견했다면 사진 등 증거 자료를 확보한다.
2. 국립국어원 '공공언어 개선 국민 제보' 게시판으로 찾아온다.
3. 발견한 공공언어 출처, 문제점, 대안을 반드시 포함하여 게시글을 작성한다.  
※ 제보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 권고 공문 발송 등 국어원에서 개선 조치 예정입니다.

### <행사 기간>

2018. 8. 30.~9. 13.(2주간)

### <우수 사례 상품 지급 내용>

- 최우수 1건: 모바일 상품권 30만 원권 지급
- 우수 3건: 모바일 상품권 20만 원권 지급
- 장려 6건: 모바일 상품권 10만 원권 지급

# 쉬어 가는 우리말

우리말 탐구

다채로운 우리말

바른 말 탐구 생활



우리말 탐구

## 원래 우리말? 외국에서 온 말!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며 산으로, 들로 캠핑을 가는 사람들이 많다. 대형 백화점이나 마트에서 각종 캠핑 용품들을 파는 것도 많이 볼 수 있고, 전국 곳곳에서 캠핑장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캠핑’은 산이나 들 또는 바닷가 따위에서 텐트를 치고 야영하는 것을 이르는 말이다. 캠핑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캠핑의 방식에 따라 그 명칭들도 다양해지고 있다. 야영 장비를 가방에 담아 가는 백패킹, 내부에 취사 시설과 침대 등을 갖춘 여행용 트레일러를 이용하는 카라반, 비용을 많이 들이는 고급스러운 야영을 뜻하는 글램핑, 텐트를 사용하지 않고 동굴이나 바위, 큰 나무 따위를 이용하여 하룻밤을 지새우는 비바크 등을 예로 꼽을 수 있다. 이 중 ‘비바크’는 흔히 ‘비박’, 혹은 ‘비박 캠핑’으로 불리며 많은 등산가들과 캠핑족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





그런데 캠핑족이 흔히 사용하는 ‘비박’이라는 말을 한자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아마도 ‘비박’은 ‘백패킹’, ‘카라반’, ‘글램핑’과 달리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외국어의 모습을 포함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며 어감도 한자어처럼 느껴지기 때문인 듯하다. 그러나 ‘비박’은 야영지를 뜻하는 독일어 ‘biwak’에서 온 말로, 외래어 표기법에 따르면 ‘비바크’라고 쓰는 것이 맞으며, ‘비바크’와 그른 표기인 ‘비박’은 ‘산중 노숙’으로 다듬어 쓸 수도 있다. 사실은 외국에서 온 말이지만 우리말처럼 느껴지는 말들을 다음과 같이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다.

표제어	원어	뜻풀이
망토	manteau(프랑스어)	소매가 없이 어깨 위로 걸쳐 돌려 입도록 만든 외투
백신	vaccine(영어)	『의학』 전염병에 대하여 인공적으로 면역을 주기 위해 생체에 투여하는 항원의 하나 『컴퓨터』 컴퓨터 바이러스를 찾아내고 손상된 디스크를 복구하는 프로그램
빵	pão(포르투갈어)	밀가루를 주원료로 하여 소금, 설탕, 버터, 효모 따위를 섞어 반죽하여 발효한 뒤에 불에 굽거나 찐 음식
지그재그	zigzag(영어)	갈지자(之)형
지로	giro(영어)	『경제』 은행 따위의 금융권에서, 돈을 보내는 사람의 부탁을 받아 돈을 받을 일정한 번호의 개인이나 단체의 예금 계좌에 돈을 넣어 주는 방식
해먹	hammock(영어)	기둥 사이나 나무 그늘 같은 곳에 달아매어 침상으로 쓰는 그물

‘망토’나 ‘지그재그’처럼 외국에서 온 말을 그대로 사용해서 익숙해진 사례가 있다면, 외국어가 우리말과 결합되어 사용되는 말들도 있다. 하나의 예로 ‘허용 가능한 제한 범위의 경계나 한계’ 등의 뜻으로 쓰이고 있는 ‘마지노선’을 꼽을 수 있다. 마지노선은 프랑스가 국경에 건설한 요새선이었는데, 이 요새선의 건설을 제안한 프랑스 육군 장관 마지노(Maginot, A.)의 이름을 딴 것이다. 이때의 ‘마지노(Maginot)’와 줄을 뜻하는 한자어 ‘線(선)’이 결합하여 ‘마지노선(maginot線)’이라는 말이 만들어졌고 널리 쓰이게 되었다. ‘바자회’와 ‘터부시하다’도 비슷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표제어	원어	뜻풀이
바자회	bazar會	공공 또는 사회사업의 자금을 모으기 위하여 벌이는 시장
터부시하다	taboo視하다	특정 집단에서 어떤 말이나 행동을 금하거나 꺼려야 한다고 여긴다

이와는 반대로 많은 사람들이 외국에서 온 말이라고 생각하는 우리말들도 있다. 사람의 몸을 번쩍 들어 자꾸 내밀었다 들이켰다 하는 일을 가리키는 ‘헝가래’가 그 예 중 하나이다. 많은 사람들이 헝가래를 외래어로 생각하는 이유는 우리말 중에 드물게 ‘헝’ 자로 시작하기 때문인 듯하다. 바지, 치마 따위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어깨에 걸치는 끈을 일컫는 ‘멜빵’도 우리말이지만 외국에서 온 말처럼 여겨지는 말이다.

# 궁금한 우리말

안녕! 우리말  
다듬은 말 알아보기  
맛의 말, 말의 맛



더운 여름날 시원한 물, 나아가 차가운 얼음을 먹을 수 있다면 잠시나마 더위를 이길 수 있다. 더운 여름날 얼음을 얻기 위해서는 기계의 힘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 이 문제는 냉장고가 해결해줬다. 그저 물맛만 나는 얼음이 아니라 특별한 맛이 가미된다면 금상첨화다. 이 또한 설탕을 비롯해 맛과 향을 더해줄 감미료가 해결해 준다. 이들을 물과 함께 얼려서 먹으면 달콤한 맛과 시원한 맛을 동시에 즐길 수 있다. 1960년대에 이후 대중화된 ‘빙과류’는 이런 바람을 담아서 만들어졌다.

‘빙과(氷菓)’를 한자의 뜻에 따라 해석하면 ‘얼음과자’인데 약간 어울리지 않는 단어의 조합이다. ‘과자’는 밀가루를 반죽해 구워 내는 것인데 얼음을 구워서 만들 수는 없기 때문이다. 사실 ‘빙과’는 과자라기보다는 얼려서 먹는 후식 전체를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 그러나 우리에게 익숙한 빙과는 역시 ‘하드’다. 장사꾼들이 메고 다니던 상자를 열면 드라이아이스의 하얀 김 속에서 모습을 드러내던 그것 말이다.

‘하드’는 주전부리의 이름으로서는 꽤나 이상하다. ‘하드(Hard)’는 ‘딱딱한’이란 뜻이니 ‘하드’만으로는 이름이 될 수 없다. ‘딱딱한’이 꾸미는 명사가 있어야 하는데 꾸미는 대상 없이 그저 ‘딱딱한’이 주전부리의 이름이 된 것이다. 이렇게 이상한 이름이 붙은 이유는 아무래도 이 주전부리를 이 땅에서 본격적으로 시판하기 시작한 제조사에서 찾아야 할 듯하다. 오래된 광고에서 알 수 있듯이 광고에 ‘하드 아이스크림’ 또는 ‘하드 아이스 스틱’이란 문구를 넣었던 것이다. 광고 문구에는 ‘하드’가 꾸며 주던 대상이 있었으나, 사람들은 그것들을 떼어 내고 그저 ‘하드’로만 불러 이름이 굳어지게 되었다.

그런데 제조사의 광고에 들어 있는 ‘하드 아이스크림’이라는 표현 역시 이상한 건 마찬가지다. 설탕과 각종 감미료 및 향료를 섞어 얼리면 얼음보다는 부드럽지만 여전히 딱딱하고 퍼석거린다. 그런데 우유를 더해 잘 저어 주면서 얼리면 차갑지만 혀에서 부드럽게 녹는 ‘아이스크림’이 만들어진다. 얼음은 얼음이되 크림처럼 부드럽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아이스크림의 제조 방법이 더 복잡하고 재료비도 많이 드니 ‘하드’보다는 더 높은 등급의 생산물이다. 이런 사정을 뒤로한 채 ‘하드 아이스크림’이라는 이상한 조합으로 광고를 한 것이다. 어쩌면 사람들이 ‘하드’와 ‘아이스크림’은 결코 어울릴 수 없다는 사실을 은연중에 알았기 때문에 제조사의 바람과는 다르게 ‘하드’라고 불렀는지도 모를 일이다.

이후 ‘하드’는 ‘아이스케이크’로 슬그머니 이름이 바뀌었다. ‘하드’보다는 나은 이름이기는 하지만 ‘아이스케이크’ 또한 정체불명의 말이다. 이 주전부리를 영어권에서는 ‘아이스 팝(Ice Pop)’, ‘아이스캔디(Ice Candy)’, ‘아이스 롤리(Ice Lolly)’, ‘팝시클(Popsicle)’ 등의 이름으로 부른다. 아무래도 ‘아이스케이크’는 일본이나 우리나라에서 만든 이름인 듯한데 우리도 가끔 ‘아이스께끼’란 일본식 발음으로 이 말을 쓰는 것을 보면 일본에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더 크다. 한때 ‘아이스께끼’가 짓궂은 사내아이들이 여자아이들의 치마를 들추는 몸쓸 놀이를 가리키기도 했는데 지금은 사라져 그나마 다행이다.

중국에서는 ‘하드’와 ‘아이스크림’을 독특한 방식으로 받아들여 쓰고 있다. ‘하드’ 혹은 ‘아이스케이크’는 중국에서 ‘쉐가오(雪糕)’로 불린다. ‘雪糕’의 ‘雪’은 ‘눈’을 뜻하고, ‘糕’는 ‘떡’이나 ‘빵’을 뜻하니 ‘눈떡’이나 ‘눈빵’ 정도의 뜻이다. 중국에서는 외래어를 가능하면 중국어로 의역해서 받아들이니 충분히 이해가 된다. 그런데 ‘아이스크림’을 뜻하는 ‘빙치린(冰淇淋)’은 언뜻 보면 정체불명이다. ‘冰’은 얼음을 뜻하는데 ‘淇淋’은 자주 쓰이는 글자도 아니고 뜻도 잘 전달되지 않는다. ‘冰淇淋’의 비밀은 ‘淇淋’의 발음 ‘치린’에 있다. ‘아이스’는 ‘冰’으로 뜻을 살려 바꾸고 ‘크림’은 ‘치린’으로 최대한 비슷한 발음으로 살린 것이다.

북한에서도 더운 여름날 아이스크림은 필수다. 한때 북한에서는 아이스크림을 ‘얼음보숭이’라고 한다고 알려지기도 했다. 가능하면 외래어를 피하려 하는 북한이니 그럴듯해 보이는데 실제로 사용되었는지는 미지수다. ‘보숭이’는 ‘고물’을 뜻하는데 얼음과 고물이 잘 어울리지 않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거의 쓰이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에서는 ‘에스키모’란 상표명이 아이스크림을 대신하고 있다. 개인이 기계를 들여다가 ‘아이스크림’이나 ‘까까오’등을 만들어 팔기도 했지만 ‘에스키모’란 상표명의 아이스케이크가 양산돼 대대적으로 유통되다 보니 상표명이 이 부류의 제품 전체를 부르는 이름이 되었다.

북한에서는 ‘에스키모’가 천하를 통일했지만 남쪽에서는 춘추전국시대를 방불케 하는 상황이 이어졌다. 이후 딱딱한 빙과류는 ‘아이스케이크’라는 이름으로 통칭이 되고 ‘바’를 끝 돌림자로 쓴 제품들이 수없이 많이 출시되었다. 연인이 서로 사랑하는 정도를 확인할 수 있다는 ‘쌍쌍바’, 도둑들이 싫어한다는 ‘누가바’ 등이다. ‘쌍쌍바’는 이름대로라면 네 쪽의 ‘바’가 들어 있어야 하는데 차마 ‘쌍바’라고 이름을 지을 수 없어 ‘쌍쌍바’가 된 것으로 보인다. ‘누가바’의 ‘누가’는 씹어 먹는 사탕 종류인 ‘nougat’인데 아는 이가 드물다.

진짜 아이스크림은 ‘콘’이란 돌림자를 달고 출시된다. ‘콘(cone)’은 본래 ‘원뿔’을 뜻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본래의 뜻과는 관계없이 원뿔형으로 포장된 아이스크림의 지시하는 것으로 사용된다. 도대체 왜 그 시각에 만나야 하는지 아무도 말해 주지 않지만, ‘열두 시에 만나요.’로 시작되는 광고 음악과 함께 ‘대박’을 친 아이스크림이 ‘부라보콘’이란 이름을 달고 나온 덕이다. ‘퍼먹는 아이스크림’ ‘빵빠레’와 ‘퍼먹는 아이스크림’ ‘투게더’, 그리고 입에 전혀 붙지 않는 31가지의 이름을 알아야 먹을 수 있는 아이스크림이 등 종류가 다양하지만, 아이스크림은 여전히 ‘콘’이다.

‘딱딱하고도 부드러운 아이스크림’에 붙여진 다양한 이름들을 보게 되면 복잡한 생각들이 얽히게 된다. 외국에서 기술이 개발되어 이 땅에 흘러 들어오게 되었으니 그 이름이 외국어에 기원을 두고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긴 하다. 그러나 제조사의 욕심 때문에 ‘하드’와 같이 말도 안 되는 이름이 붙은 것, ‘콘’이 본래의 뜻과 상관없이 아이스크림을 대표하게 된 것 등은 납득하기 어렵기도 하다. 상표 이름으로 지어진 갖가지 괴이한 이름들도 씹쓸하기는 마찬가지다. 그렇다고 ‘빙치린’처럼 의역과 음역을 넘나들기에는 우리말의 발음과 한글 표기가 너무도 자연스럽다. 엄격한 언어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북한마저도 외래어 상표명 ‘에스키모’가 단어로 굳어진 것을 보면 어쩔 수 없는 문제로 보이기도 한다. 결국 만드는 사람과 사 먹는 사람의 양식에 맡길 수밖에 없는 문제다.

---

**글\_한성우**(인하대학교 한국어문학과 교수)

이 글은 필자가 2016년에 펴낸 《우리 음식의 언어》(어크로스)에서 일부를 추려 내어 다시 쓴 것이다.



# 쉬어 가는 우리말

우리말 탐구

다채로운 우리말

바른 말 탐구 생활





조기 따위의 물고기를 짚으로 한 줄에 열 마리씩  
두 줄로 엮은 것을 세는 단위



미역을 묶어 세는 단위  
한 뭇은 미역 열 장을 이른다.

사진 출처: 진도군 공식 블로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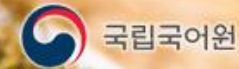
# 접



채소나 과일 따위를 묶어 세는 단위  
한 접은 채소나 과일 백 개를 이른다.



# 채



가공하지 아니한 인삼을 묶어 세는 단위  
한 채는 인삼 750그램을 이른다.

사진 출처: 영주시 공식 블로그

풍성한 한가위  
보내세요.



사진 출처: 해외문화홍보원 누리집